

몸 다루기

심신의학

그 문 없는 큰 길

전세일 박사(포천 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장) / 편집부

이 글은 지난 11월 한국정신과학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듣고 좀 더 자세히 인터뷰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전세일 박사는 의학이 통합의학으로 향하고 있으며 생명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루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편집자 주)

미내사: 서양의 정통의학을 공부하신 분이로서 대체의학, 심신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전세일: 심신(body/mind)에 대해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심리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몸에 대한 정보는 많아도 마음에 대한 것은 불분명해요. 그 구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애매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일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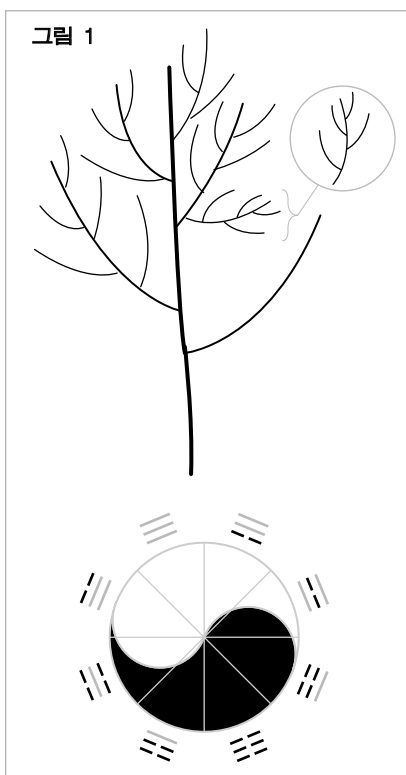
우선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대로 21C는 4D의 시대라고 합니다. Digital, DNA, Design, Divinity가 그것입니다. 디지털이란 것은 정보화 시대라는 말입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나 기술을 서로 교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DNA는 지금의 관심이 유전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거기에 중점을 두는 유전자, 유전공학의 시대를 뜻합니다. 디자인은 무형의 디자인, 문명도 일종의 디자인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도 디자인으로 생각하고 강조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디비니티(Divinity)라는 것은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현대는 이렇게 4개의 D로써 특징지워진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 네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DNA라는 것은 생명의 프로그램이고 생명의 디자인입니다. 또 생명체와 생명체, 부분과 부분이 계속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정보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명에서는 영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세히 보면 이 네가지가 모두 연결 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새로 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회 심리적인 것만 건강의 정의에 포함되었는데 최근에는 영적인 건강을 추가하여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참된 건강이다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전세계 건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며, 어떻게 정상으로 돌려줄 것인가? 또 그런 일은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것이 대체의 학과 다양한 요법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디자인에 대해 좀더 말씀 해주십시오.



[그림1] 여기 이 나무를 하나 보더라도 디자인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중심이 되는 줄기입니다. 그런데 줄기에서 갈라져 나간 가지 하나하나의 모습도 이 나무 전체의 모습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지의 가지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도 기본은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무입니다. 이 조각 하나를 영어로 프랙션(fraction)이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론을 프랙탈(fractal)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체내에도 이와 똑같습니다. 혈관, 신경, 폐, 기관지 등 똑같은 모양의 프랙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 나무의 뿌리도 같은 프랙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자연의 원칙들은 나

못가지의 작은 조각만 하나 떼어내면 전체를 알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생명도 바로 이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태극이란 디자인을 보세요. 이것을 조각내 나누어 봅시다. 큰 원을 팔등분 해보면 맨 위와 아래는 붉은 색과 푸른 색만 있는데 그 나머지는 다 조금씩 서로 섞여있지요. 그 비율대로 디자인한 것이 팔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연히만 볼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원리를 디자인 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에는 팔괘가 아니라 사괘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그려진 것과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즉 붉은 기운과 푸른 기운의 비율상 우상(右上)에는 이괘(離卦)가 좌하(左下)에는 감괘(坎卦)가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를 제대로 그려야 나라가 바로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수선한 것은 태극기가 잘못 그려져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웃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불을 잘 그려야 회사가 잘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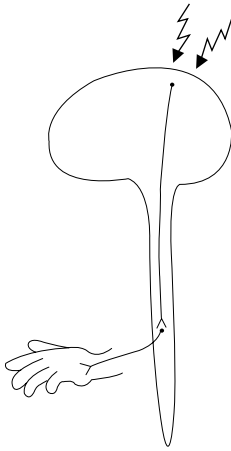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심신에 대해 말할 때 서로의 관계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은 듯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산만한 몸과 마음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어야, 심신의 상관관계에 제대로 접근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신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림2] 자 이것이 뇌고, 중추신경이고 손입니다. 예를 들어 '이 펜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생각이지요. '잡아라' 고 생각을 하면 손이 잡게 되는데 실제로 펜을 잡기 위해서는 나의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되고, 근육이 수축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전기가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수축을 해야 하지 않아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을 마비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언제 전기로 바뀌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것을 염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모두 초능력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물리적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는 이

그림 2 심신 반응

- 생각 → 전기 Energy
- Placebo(偽藥效果)
- 스트레스(Stress)→Symp.N.→B.N.
→질병(Disease)
- 거짓말→자율신경계(ANS)→ 
- 특이공능→ 확신하는 사람만



마음이 언제 어디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접점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어떻게 물리적인 에너지로 바뀌느냐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학에서도 설명을 못하고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의심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으레 그러려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학문이 바로 여기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물리적 에너지로 바뀌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생각도 일종의 전기 아닙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전기다’ 라는 것을 아무도 검증해보지 못한 것이지요.

뇌파로서 추리해볼 수는 없나요?

뇌파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뇌의 조직이 움직이는 것에서 나온 미약한 전기적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뇌에서 파(波)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파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기계적으로 변환해 그려본 것입니다. 그 움직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동이 되는 것이지 뇌에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은 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물질이 아니란 말이예요. 하여튼 생각이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원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주제로 돌아가서,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플라시보(Placebo) 효과라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 약을 새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 두 부류에게 약을 주는데 한쪽은 진짜 약을 주고 다른 쪽은 가짜약을 주어 그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가짜 약 성분을 먹은 사람 중에 그 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나아지리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 35%가 낮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약효과(Placebo; 僞藥)라고 합니다. 즉 마음먹기에 따라서 몸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도 과학계에서는 그 연계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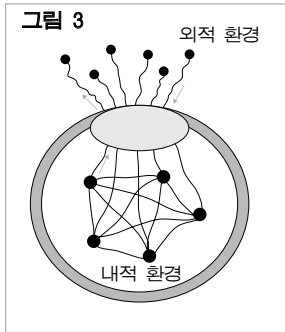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특히 우리의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이런 현상이 오래가면 병이 됩니다. 여기서도 위의 사실들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보세요. 기계를 걸어놓고 질문을 할 때 거짓말을 하면 아무리 태연하고 점잔케 말을 해도 교감신경이 움직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프로 그려져 나옵니다. 즉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또 특이공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에만 능력이 생깁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들은 그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힘을 믿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새시대에 하나의 의미있는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런 접점들을 찾기 위해서이며,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이 문제제기라면 이제부터 이야기 할 것은 현재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있고 관심의 강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생명에 대한 것, 그리고 몸과 마음의 관계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하는가를 정리해보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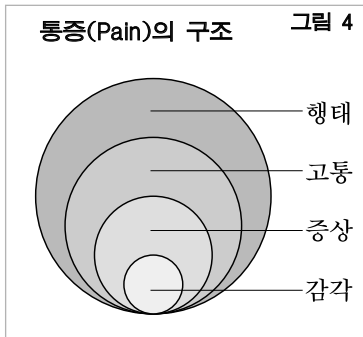
것입니다.

[그림3] 다음 그림은 우리라고 하는 개체는 내적환경과 외적환경이라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뇌나 신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4] 다음 그림은 통증에 대한 것인데요. 통증이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입니다. 이 무형의 것도 구조를 디자인해서 연구하면 진단하기도

쉽고 치료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통증을 다음과 같이 구조화 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쪽은 생리적인 감각으로서의 통증입니다. 그 다음은 병이 생겼을 때 증상으로서의 통증, 다음은 고통으로서의 통증이 있고, 하나의 행위, 행태(行態)로서의 통증이 있습니다. 엄살이 심한 사람은 생리감각이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똑같은 자극을 주는데 찢리기도 전에 아프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고, 꼭 찜는 사람도 있습니다. 증상은 어디가 잘못되었을 때의 통증입니다. 그 다음은 고통으로서의 통증인데, 애기를 낳을 때와 암에 걸렸을 때 통증의 정도는 같아도 고통의 정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행태로서의 통증은 이미 증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오고가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상대가 ‘안녕하기는 뭘 안녕해요, 요새 허리가 아파서 어찌고....’ 라고 한다면 이는 이미 행태로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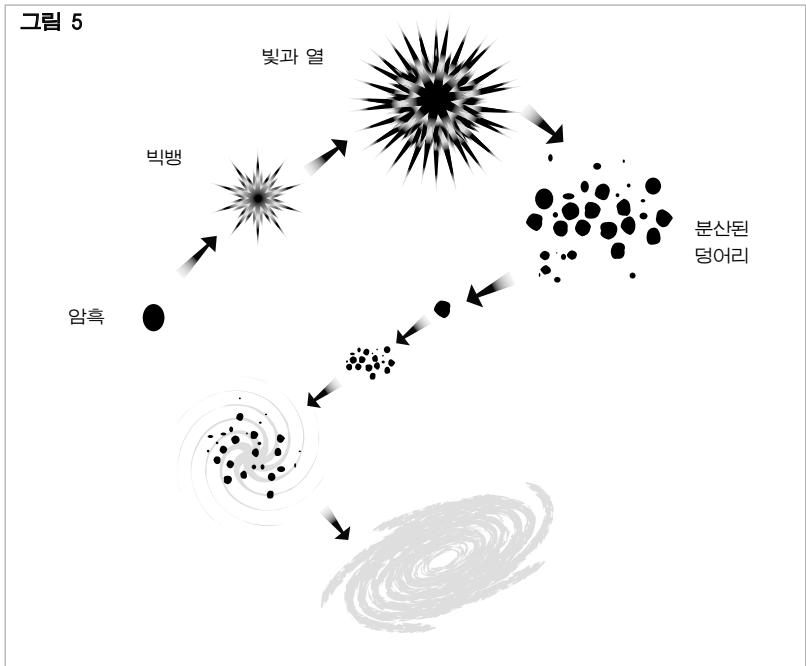


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물리치료를 하고 주사를 놓아도 절대 낫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행태교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처음 것은 고통(suffering)으로서 다뤄주어야 하고, 두 번째는 증상을 없애주어야 한다면 마지막 것은 훈련을 통해 소위 역치(threshold)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머리가 아프거나 허리

가 아프다 해도 어디에 속하는 통증(pain)이냐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야 되는 것처럼 무형의 것도 잘 디자인해서 접근하게 되면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로 들었습니다.

[그림5] 이제 우리는 생명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암흑의 상태에서 에너지가 뭉쳐있다가 빅뱅이후 빛과 열이 생기고, 이것이 식으면서 분산된 덩어리가 생깁니다. 덩어리가 유지되려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끌어당기는 힘만 있으면 뭉쳐져 버리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 돌게 됩니다. 돌아야 끌어당기는 힘과 나가려는 힘이 조화를 이루며 분산된 어떤 존재로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우주에 우리 은하계가 있고 그 안에 작은 태양이 있으며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조그만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중 먼지같은 이 지구에만 생명이 살 수 있는 물이 있고 더욱이 생명이 있는 그 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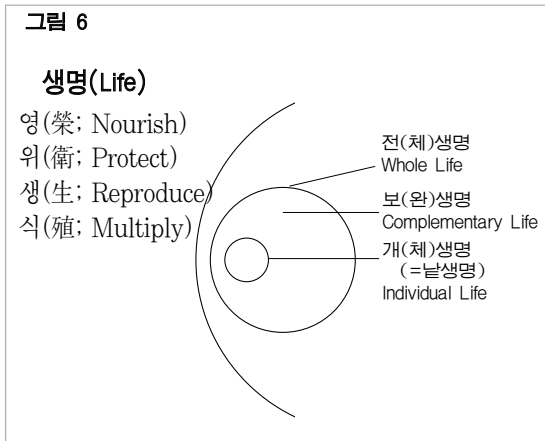


사과로 말하면 껍질만도 못한 얇은 표층에만 있습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살수 있도록 알맞은 물과 불의 기운이 적절히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천개지벽인생, 즉 하늘이 열리고 땅이 바뀌어 사람이 태어나는 현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혼돈에서 코스모스 즉 우주라는 질서가 생겨나고 이것이 나중에는 다시 뭉쳐버리는 과정이 영원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이론이 서양에 있는 반면 동양에서는 유(有)가 극(極)하면 무(無)가 되고 무가 극하면 유가 된다는 태극설이 있는 것입니다. 또 2는 양의설(兩儀說), 3은 삼분설(三分說), 4는 사상설(四象說), 5는 오행설(五行說), 6은 육합설(六合說), 7은 칠요설(七曜說), 8은 팔괘설(八卦說), 9는 구궁설(九宮說) 등, 우주만물은 어떤 리듬을 따른다고 합니다. 우주가 이러한 리듬을 통해 생겼다 없어졌다를 되풀이 한다는 것이 태극설입니다.

생명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림6] 영위생식(榮衛生殖). 스스로 영양을 주어 경영하는 영(榮),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위(衛),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생(生), 번식할 수 있는 식(殖)이라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무생물과 다른 것은 바로 이

영위생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生)과 식(殖)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은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것이고 식은 하나가 아니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즉 번

식입니다. 하나가 하나씩 만들어내면 없어질 가능성이 많지요? 많이 만들어 유지시키기 위해서 생물체가 전부 번식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위생식하는 존재인데, 여기에서 생명에 대한 시각이 독립된 하나의 생물체가 아니라 주위의 다른 생물체와 다 얽혀있다는 걸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림6]이런 하나 하나인 낱생명을 개체생명(個體生命)이라 하고 그 주위의 다른 생물들을 보(補)생명, 그 전체를 전(全)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조금 확대하면, 이 전체(전생명)가 낱생명이 되면서 그 주위가 보생명이 되고 낱생명과 보생명을 합한 것이 온생명 즉 전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양파껍질처럼 여러 차원으로 낱생명, 보생명, 온생명이 분리가 되는 거지요. 세포 하나가 낱생명, 그 세포 하나 마다 함께하는 다른 세포가 보생명, 그 세포와 다른 세포를 합한 것이 온생명. 이렇게 나 자체가 온생명이 되는 동시에 나와 외부의 관계는 내가 낱생명이 되고 나 말고 다른 것이 보생명이 되고 나와 다른 것을 합한 게 온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얽힌 관계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생명 하나하나를 다루는데 요령이 생기는 것이지요. 사람이 어떤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일 뿐이라고만 한다면 주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림7] 사람 전체인 인류(人類)가 있고, 어류(魚類)라는 존재, 세균류라고 하는 균류(菌類) 그외에 다른 류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낱생명, 그 나머지가 보생명, 그 전체가 온생명 등으로 이런 관계가 점차 커진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하나의 절대적인 생물체이고 계속해서 낱생명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림8]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이 성질(性質)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물질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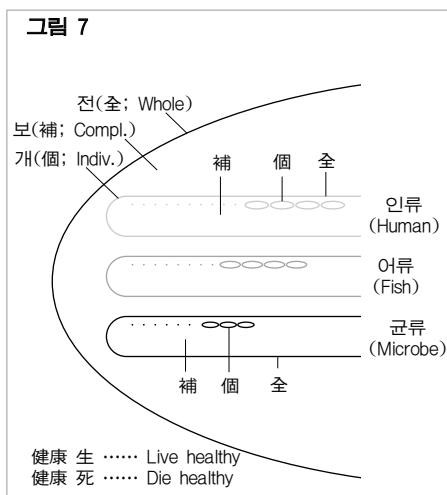


그림 8

성(性) · 질(質)

Nature Characteristic

Non-Matter

感 神 世 宇 時 非物質 初 末 事 象 能

覺 精 界 宙 空 物 質 始 終 物 形 機

Matter

Non-Matter

Essence Existent Mind 性 Ease III Care Manage
元 存 心 健 疾 治

素 在 身 質 康 病 療
Element Being Body Strong Sick Repair Treat

Matter

그 물질이 아니면서 존재하는 것을, 비물질이라고 합니다. 즉 물질과 상대적인 것을 말하죠. 그렇게 물질과 비물질이 있는데, 물질의 성질이 질(質)이고 비물질의 성질이 성(性)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공간은 물질적인 것이고, 시간은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우주에는 물질적인 우주와 비물질적인 우주가 있고, 그래서 세계는 비물질적 시간의 세계와 물질적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에 있어서도 정은 물질이요, 신은 비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감각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우리가 처음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적인 처음이 시(始)이고 비물질적인 처음이 초(初)입니다.

비물질적인 처음(初)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시간의 처음을 예를 들어 초기, 중기, 말기라고 그러죠. 시기(始期), 중기(中期), 종기(終期)라고 안 그래요. 물질이 아니기 때

문에 초기, 말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시(始)발점, 종(終)착역이라고 하지요. 같은 시작이고 처음이지만 시와 초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감각은요?

감각도 마찬가지이죠. 이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센서블한 것이 감이고, 작은 직접적 느낌이죠. 그래서 비물질적일 때 감정, 물질적일 때 촉각이라고 하죠. 사물(事物)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자동차가 찌그러지고 사람이 다치는 것은 하나의 물질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事)는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 차가 오면서 부딪히며 일어나는 페노메논(Phenomenon) 즉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은 사와 물인 거예요. 형상(形象)도 물질적인 것이 형이예요. 상이라고 하면 이미지이지요. 생각으로 하는 이미지와 같은 것 말입니다. 사람 하나만을 봐도 '크다, 튼튼하다' 라는 것은 형이고, '인자하다' 와 같이 풍기는 이미지는 상입니다. 기능(機能)도 물질적인 기능이 기이고, 비물질적인 기능이 능이예요. 기와 능이 달라요.

만약 이기(理氣)로 따진다면 기는 물질이고 이는 비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기로 할 때, 사실은 꼭 물질과 비물질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기의 개념은 이(理)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고 기(氣)는 전원이예요.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지만 다른거예요. 다르지만 또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의 프로그램은 이이고 전원은 기라고 할 수 있어요. 둘이 함께가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고 작용을 못하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기는 물질과 비물질 각각에 나타날 수가 있는거네요.

그렇죠. 물질과 비물질도 각각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가 비물질

이고 기가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볼 때 마음이 성(性)이고 몸은 질(質)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몸은 체질, 마음은 심성이라고 표현하죠. 존재라고 하는 것도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물질적인 존재를 재(在)라 하고, 비물질적인 존재를 존(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남편이 있다. 그 집에 아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존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아들이 지금 방안에 있나, 남편이 지금 사무실에 있나' 하는 것은 재입니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존이고, 그 남편이 차안에 혹은 방안에 있는 나하는 것은 재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실존인물이라고 말할 때는 방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안에 있다고 할 때는 재실이라고 하지 존실이라고 하지 않지요. 재실은 육체적, 물질, 현실적으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공간적으로 있다는 것이 재이고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이 존이란 말입니다. 원소(元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원소지만 물질적인 원소가 소고 비물질적인 원소가 원이라는 것입니다.

비물질적인 원(元)이라는게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단위지만 물질적이 아닌 것이 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말할 때도 시간은 물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아주 근본적이고 작은 단위를 보통 원소라고 하지요. 너무나 작은 단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원소라는 생각을 그렇게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건강도 두 개념으로 나뉘는데 실질적인 몸의 부분이 튼튼한 것을 건(健)이라고 해요. 질(質)이 튼튼한 거예요. 강(康)은 성(性)이 편안하다는 점을 말합니다. 육신은 튼튼한거고 심성은 편안한거예요. 그걸 합해서 건강이라고 하는거죠. 건강이라는 것도 이렇게 물질과 비물질에 대해서 함께 표현한 것이죠.

병(病)이라는 것은 육체적 질이 잘못되어서 끄끙 앓게 되는 것이 병이고 비물질적 성이 평안하지 않아서 괴로운게 질(疾)입니다. 또 치료의 료(療)라는 것도 질(質)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서로 맞추고 뺄건 빼는 것이예요. 치(治)는 비물

질적인 것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영어에서도 케어(Care)와 트리트(Treat)는 다르잖아요. 治는 care, manage에 해당하고, 療는 repair, treat에 해당합니다. 관리하는 것은 처치(treat)하는 것과 다른거죠.

치(治)라는 것은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우리속에 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치(治)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정부라고 할 때에 수도가 대전이나 부산에 있으나, 그런 무형적인 시스템은 똑같은거예요. 즉 정부의 수도라는 게 있고,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다는 시스템이죠. 그것은 유형이 아니고 무형입니다. 대통령인 사람이 어떤지는 질적으로 다 알아요. 그렇지만 비물질적인 제도(시스템)라는 것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방안에 있는 책상들의 재질이 질적인 측면이라면, 책상들을 가지런히 해놓은 것은 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흐트러 놓느냐, 가지런히 놓느냐... 즉 질(質)의 패턴을 치(治)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 직원이 이 방 세팅을 “책상 배치를 등글게 할까요?”라고 했을 때, 등글게 한다는 개념이 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기아, LG, 삼성 등 운동선수들 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삼성에 있던 선수들이 전부 기아로 옮겨가서 이기면, 기아가 이겼다 그러지요. 삼성에 있던 선수들이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팀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시스템은 무형입니다. 시스템내의 존재, 실체들은 물질이에요. 그게 물질과 비물질인데 시스템을 다루는 것이 치이고, 시스템에 속해 있는 실체들을 맞바꾸는 것은 료라는 말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에서도 치와 료를 모두 해야 제대로 된 것입니다. 지금 동서의학에 있어서 서양의학은 주로 질을 다룰 줄 알고 동양의학은 성을 다룰 줄 압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단백질, 지방질, 당질, 섬유질, 광물질 등을 다루죠. 그러나 동양의학에서는 음성, 양성,

연성, 경성, 독성 등 성을 다룬단 말이예요.

그런 식의 개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심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림9]다음으로 서양에서는 서양의학을 정통의학이라고 규정하고 그 나머지 모든 전통의학과 민간요법을 통틀어서 대체의학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동양의학도 저 안에 들어가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의학도 엄연히 정통의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뺀 나머지가 대체의학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의학의 방향은 이런 것을 모두 합해서 통합의학 혹은 전일의학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틀 속에서는

몸과 마음을 둘다 다루는, 성과 질을 다 다루는 그런 의학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서양의학은 질적인 것을 다루고 건(建)을 다룹니다. 동양의학은 성을 다루고 다스리는 치를 다루고 강(康)을 다루죠. 그래서 이 모두를 합치면 치료, 건강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접근하려면 심신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심신(心身)을 살펴볼까요. [그림10] 심신을,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 성분들을 보면 우선 여러 가지로 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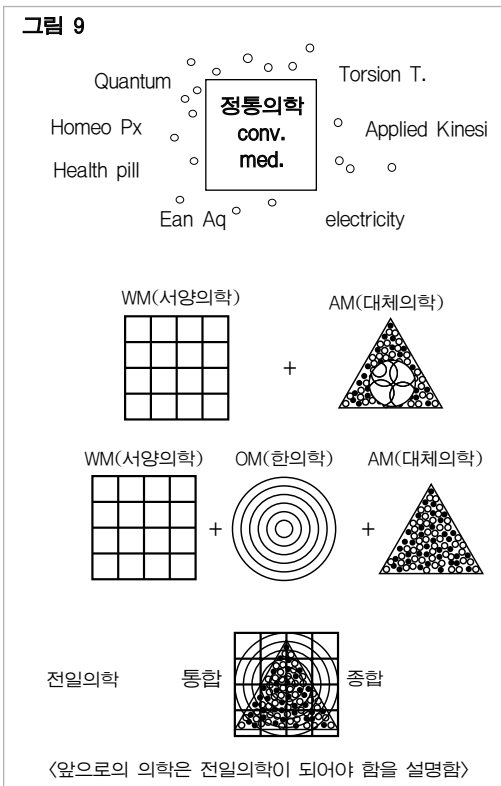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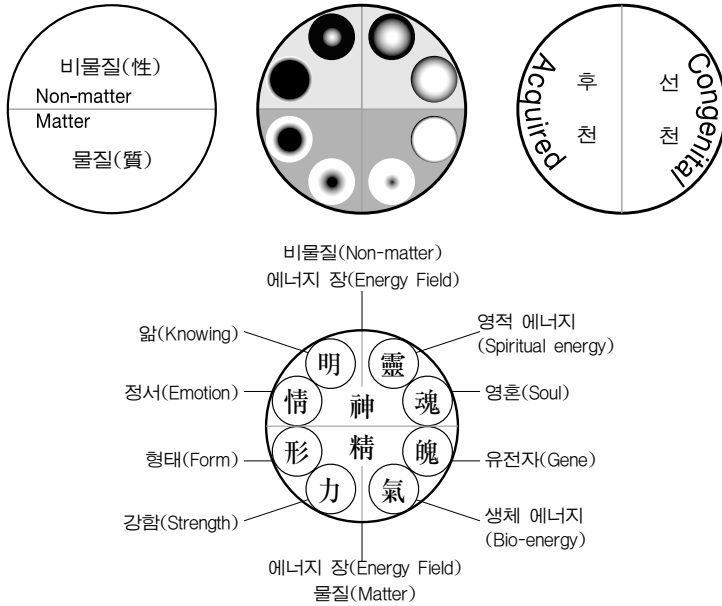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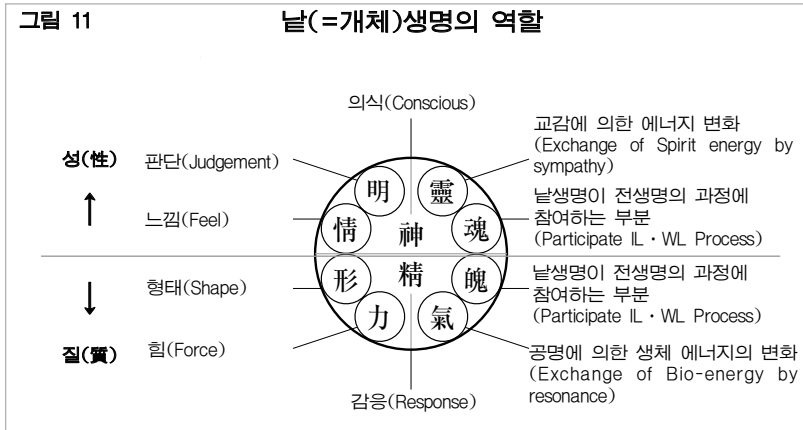
심신 구조



화 되는데 전체를 이렇게 잘라서 우측은 선천이고, 좌측은 후천적인 측면이라 봅니다. 다시 상하로 나누어 상부는 성, 하부는 질에 해당되는거죠. 구조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이는 것(그림11 아래(질))은 이해하기 쉬운데 보이지 않는 것(그림11 위(성))은 어려우니까 일단 보이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지요. 사람에게도 프로그램이 있단 말입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이런 저런 건물과 도시가 태어나는 것 처럼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근본적으로 있어 이것은 계속 없어지지 않고 계속 후대로 전해지는거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든, 브라질에 가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거기에 있는 물질로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63빌딩의 설계도를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건물을 지으면 재료는 그곳의 재료를 쓰지만 설계도는 똑같은 설계도예요. 그것만 있으면 똑같은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그와 같은 설계도 프로그램이 인간에게는 소위 유전자

그림 11

날(=개체)생명의 역할



에 해당하는 것인데 옛날 말로 표현하면 백(魄)에 해당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프로그램이예요. 유전자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전원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걸 생기라고 합니다. 기(氣)라는 것은 우주에 꼭 차서 어디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재력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을 때 내 재력은 주머니에 있는 현금도 있고, 은행에 있는 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가지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기(氣)도 하늘에 있냐, 땅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기, 지기라고 하는데 생물체에 있으니까 생기란 말입니다. 우리 인체에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에너지원이 작용할 때 생성도 되고 크기도 하고 변화가 생기지요.

왜 유전자에 해당하는 것을 백(魄)이라고 하셨지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백이라면 혼백이라고 해서 물질적이라기 보다는 좀 성(性)적인, 정신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시작한거란 말이에요.(그림11) 위가 성이고 아래가 질인데, 백이라는 것은 질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대비해서 그런거죠. 혼

이 바로 성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정신도 마찬가지로요. 정신이라고 하면 멘탈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신도 정(精)은 질에 해당되고 신(神)은 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생각하면 멘탈을 떠올리는 데 엄밀히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혼백도 혼을 자꾸 생각하는데, 혼과 백으로 나눌 수 있지요.

결국 우리 조상들은 전체를 다 얘기해온 것이군요.

그렇죠. 우리의 개념들이 혼백하면 혼을 생각하고 정신하면 신을 생각하는 거지 사실 원래는 두 측면이 다 들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해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체에 존재하는 기가 생기이죠. 즉 바이오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전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기가 있고 자극이 있으면 필드가 생겨요. 생명장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적인 생명장이 정(精)입니다.

(그림11)의 질적인 측면을 전부 합쳐놓은 장이 정(精)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질적인 것에는 물리적인 힘과 화학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그 힘의 상관관계 때문에 딱딱한 것도 있고, 느슨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 하나의 형태(形)를 이루는 거예요. 또 힘(力)이 있어서 힘의 균형을 이루기도 하지요.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형으로, 폼(form; 형태)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폼을 보는 거예요. 안에도 이렇게 깔려 있는 전원이 있죠. 아무리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작용을 해도 전기가 흘러야 되듯이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때 장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정(魄-유전자, 氣-생기, 力-힘, 形-형태)은 가시적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한 것이고 이것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백에 해당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혼입니다.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에 덧붙여 또 보이지 않는 에너지도 있어요. 그것은 생기가 아

니고 영기(靈氣)예요. 그것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혼도 혼대로 프로그램이 있고 영도 영대로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성이고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도 나뉘는 프로그램이 운용되면서 필드가 생깁니다. 그것이 신(神)이에요. 그래서 물질과 비물질을 합한 에너지 장(energy field)을 정신이라고 하는겁니다.

정(精)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백(魄), 기(氣), 힘(力), 형(形)쪽으로 갈수록 점차 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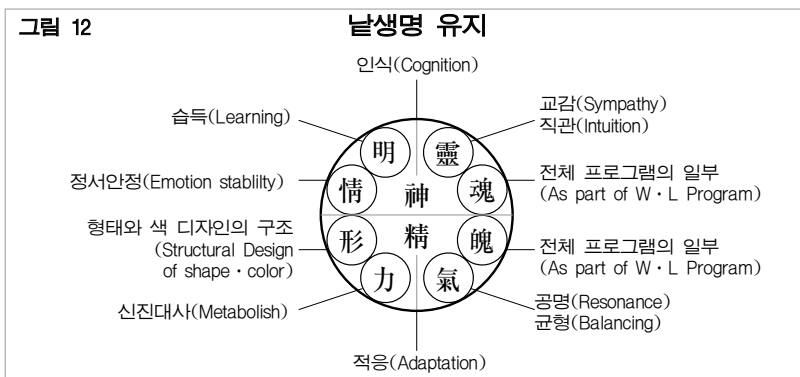
그렇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쪽이죠.(그림11 참조) 내부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반대로 형, 힘, 기, 백 방향입니다. 상부(上部)의 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명(明)이라는 것은 후천적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배워서 아는 거예요. 크다, 뜨겁다, 나쁘다 이런식으로 점점 배워가게 후천적이라는 거죠.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명하고, 명석하다, 명확하다 할 때 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명의 상관관계에서 오는 조화와 부조화 또는 균형과 불균형에서 느낌이 생기는데 그것이 정(情)입니다. 정에 노(怒), 즐거움, 우울함, 슬픔이 생기고 깜짝 놀람이 생기는 것은 명과 정(情)의 상관관계에서 오는 반응이죠. 정은 형(形)에 해당되는 비물질적 측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접촉했을 때 보는 것은 물질적인 형(形)이지만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즐거워 보인다거나 슬퍼보인다거나 하는 감정적인 부분들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접하는 것은 바로 정(情)과 형(形)인 것입니다. 뒤에는 명, 영, 백, 기,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두가 합하여 아까 얘기한 하나의(그림11) 날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날생명은 다른 대상하고도 접촉이 되어야 하죠? 그것은 이 필드가(그림11)의 위아래 神과 精의 에너지장) 다른 대상과 접촉하는 거예요. 지구의 자장이 있고 나의 전기장이 있으면 그 둘이 서로 접촉되잖아요. 이 자장이 클 수도 있고 윗부분(명, 영)에만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장이 넓고 강할수록 적응력이 커지고 작을수록 약해집니다. 장이 점점 확대되어서 커지면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혼백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체 생명의 프로그

램에도 관여하고 날생명을 움직이는데도 관여합니다. 유전자는 나의 유전자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관련되고 움직이는 것은 나를 포함한 전체 유전자 풀(pool)입니다. 우리는 전체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그림12: 혼, 백) 전체 마스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인 동시에 내 컴퓨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즉 바깥에도 연결되고 안에도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혼과 백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연계점이 되는 지역이네요.

그렇죠. 날생명과 온생명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혼과 백에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끼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연속성과 영원성을 가집니다. 외부의 장과 내부의 장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의식(意識)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연결될 때, 나의 뜻이라고 하는 의(意)가 생기고 알아두는 능력(識)이 접점과 반응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나의 필드와 바깥의 다른 필드가 끊어지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유지를 위해 명은 판단력, 정은 느끼는 것이고, 형은 형태, 힘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힘을 말하고, 기는 바깥의 기와 내 생기를 서로 교환하는 역할을 하죠. 내 주머니에 있는 포켓 머니는 은행에 저금된 것과 계속 교환을 해야하죠. 다시 넣기도 하지만 인출해서 주머니에 넣기도 하죠. 그렇듯이 기라고 하는 것은 생체에 대해 외부에 있는 다른 기와 서로 교류하는 역



할을 해야 합니다. 컴퓨터의 단말기에 쓰는 전기도 외부의 큰 발전소에서부터 전원이 있어서 전기를 쓰기도 하고 들어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精)이라는 것은...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거든요. 적응을 한다는 말입니다. 열이면 열, 한파면 한파로 어떤 물질적인 자극이 오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반응을 해야하니깐요. 예를 들면, 목욕탕 물에 들어갔을 때 처음엔 차갑게 느껴지만 조금 지나면 차갑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여기(정)서 나오는 에너지가 적응이 되면서 어떤 접점이 이뤄지니까 그런거죠. 뜨거운 것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냄새가 독하긴 하지만 지나면 괜찮아지듯 적응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정이라는 말입니까?

정의 역할입니다. 신은 외부와 접촉하면서 의식이라고 하는 역할로 나타난 것이고 정은 하나의 적응, 감응으로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명은 판단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자체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명(明) 같은 경우, 계속 공부(Learning)를 하면서 습득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정(精)은 하모니와 밸런스를 맞추면서(Stability) 유지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깨집니다. 힘(力)도 계속 뭇 먹어야(Metabolish) 생기죠. 화학적인 것으로 신진대사를 움직여야지요. 유지를 위해서는 신진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形)이라는 것도 형태적으로 구조의 균형을 이루어야죠. 예를 들어 자세가 비뚤어진 사람은 운동을 통해 구조를 조정하는 것처럼, 자기의 올바른 폼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겁니다.

의식은 인식한다는 것으로 계속 인식을 해야됩니다. 어떤 자극과 서로 부딪혀서 알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 인식이라는 것도 퇴화하겠죠.

정과 신에 있는 것들을(그림12 참조) 계속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되었군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떠오르고 느껴지는 것이 영(靈)입니다. 그것을 물질적으로 말하자면 공명입니다. 비물질적 현상으로 떠오르는 것을 교감이라고 합니다. 비물질적인 것은 교감이고 물질적인 것은 공명이죠.

정(精)과 신(神)은 항상 이 자체가 공명하고 있으며, 전체 틀 속에서 보면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혼백이 나예요. 진정한 나입니다. 그것의 나타남이 이것들(영, 기, 힘, 형, 정, 명..)입니다.

혼백이 낱생명의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온생명과 연결되니 어떻게 보면 진짜 나라고 할 수도 없는거네요.

혼, 백이 일종의 체(體)예요. 나머지는 용(用)이고.

그런데 그 체라는 것도 온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계속 영향을 주고 받으니, 한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죠.

‘나야..’라고 말 할 수도 없는거군요.

결국 그게 나죠. 변하지만 외부하고 연결되는 근본적인 프로그램, 전체 틀 속에서는 자꾸 변할 수 있지만 전체와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을 컨트롤하는 프로

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전체 틀속에서는 변해갈 수 있지만 변해도 정신이란 말입니다. 아까 운동팀을 얘기했는데 LG 야구팀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감독과 선수가 바뀌고 심지어 LG 회사 사장이 바뀌어도 팀은 존재한다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일 뿐인 것 같은데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살과 뼈 같은 성분이 내년 1월 되면 하나도 없이 다 바뀌지만 나라는 것은 계속 존재하잖아요. 성분은 다 바뀌는거예요. 칼슘이든지, 철분이든지 하는 것은 다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도끼가 있다면 도끼 자루가 다 낡아서 도끼 자루를 빼버리고 새로 갈고, 도끼날도 다 닳아서 딱 걸로 바꾸어서 옛날 도끼의 성분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그 도끼는 그 도끼인 것과 같은 것이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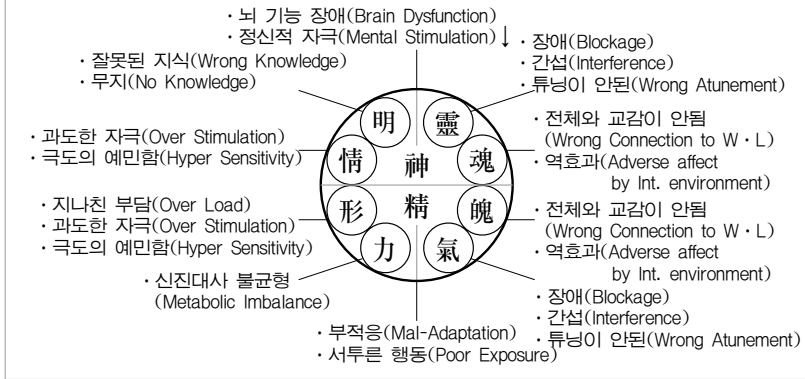
그렇죠. 우리라는 존재도 늘 변화하는데도 ‘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계속 나란 말입니다. 다 바뀌어도 나는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정(魄,氣,力,形)과 신(魂,靈,明,情)이 손상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림13] 영은 교감할 때 온전합니다. 그 교감이 안된다거나 막힘이 있다면 영의 에너지가 계속 보충을 못 받죠. 예를 들어 안 믿을 것을 믿는다든가, 잘못 믿는다든가 하는 것이 장애입니다. 이 방안에 kbs, sbs, mbc의 파장이 다 들어와 있다고 합시다. TV와 사이클이 맞으면 그 파장들이 그림도 되고 소리도 되지만 사이클이 안 맞으면 그 파장과 티비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처럼 사이클이 맞을 때 정상이죠. 그렇게 맞을 때를 우리는 어튠먼트(attunement) 그러니까 튜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잘못 믿고 있는 것은 모두다 헛

그림 13

날생명이 손상일 때(Damage of IL)



것입니다.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집을 피우면 안되는 것이지요.

명이 손상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이라고 하면 판별력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이걸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으면 여기에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안다,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옳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 알고 있다면 과연 명이란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것은 명의 기준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진리는 그대로 있는거예요.

리(理)는 그냥 리로 읽는거예요. 그런데 진짜 리를 진리라고 해요. 오리지널한 것은 원리입니다. 그것을 파헤치는 게 이해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잘못 깨우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책임이지 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리는 틀린 것이 아니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명이 부족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옳다고 얘기해도 둘 중에 한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둘다 틀릴 수도 있고 백 사람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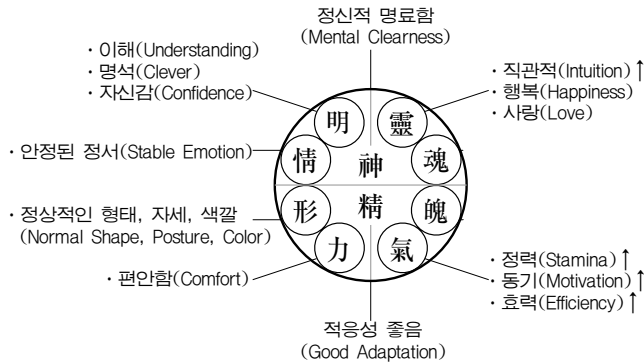
하여간, 그 진리에 틀리거나 반대된 것은 명에 손상을 줍니다. 정(情)도 마찬가지로 지나친 자극이 오거나 전체가 너무 예민하게 되었을 때 손상이 오죠. 형도 비뚤어지면 지나친 자극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힘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날 때 생깁니다. 정(精)은 적응을 잘못할 때, 예를 들어 열이 우리 몸에 다가올 때 그 열에 적응하면 아무렇지 않은 데, 이 열을 당하지 못하면 손상이 오는 거죠. 차력사나 도인들이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오지만 나의 필드 에너지가 그 열에너지와 중간에서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정이 없을 때는 별로 안 뜨거워도 다치죠. 적응이 안되니까요. 뜨거운 냄비를 드는 것도 남자들은 데일 정도의 뜨거움인데 부인들은 잘 들거든요. 적응의 차이는 사람마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응의 폭이 상당히 넓죠.

기도 마찬가지로요. 외부에 팍 차 있는 기와 나의 생기가 서로 공명이 안되어 에너지 출입이 잘 안될 때는 생기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전기를 쬐었는데 전선이 이상하다든가 불테지가 안 맞으면 전기가 잘 안들어오죠. 바깥에는 전기가 잔뜩 있어도, 그게 바로 이런 현상이죠. 이럴 때 손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일 때(그림14)는 어떨까요? 정상일 때 형(形)은 모양이 곧고 정상으로 나옵니다. 힘(力)이 균형을 가지면 육체적으로 편안함을 느끼죠. 또 물리적·화학적인 힘이 안정되어 있으니 정(精)은 적응을 잘 하게 되겠죠. 기는 정상일 때 에너지제틱하거나 스테미너 즉 정력을 느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정력이예요. 정력이 정(精)에서 나온거죠. 정(情)도 마찬가지로요. 정상일 때 정서적으로 안정된단 말이에요. 명에서는 아주 명석하고 자신 있고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뭔가 틀리면 사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속에 꺼림칙한게 있기 마련이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고집을 부려도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한 말, 자신이 편안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명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신(神)이 정상일 때는 정신이 아주 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 정상일 때는 영감이 잘 떠오르는 거죠. 또 나 밖의 절대자와 교감이 제대로 되는 것

그림 14

정상일때 (Normal state of IL)



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것은 행복감으로 나타나요. 총체적인 영기와 교감을 이룰 때 느끼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예요. 감정은 영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반응으로서의 느낌이고 사랑은 교감에 의해 우러나는 느낌이죠. 그게 가장 정상적인 상태예요.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그림15)는 뭘 느끼는가? 지금 것과 반대이겠죠. 기가 비정상적이면 기가 떨어지고 정력이 떨어집니다. 정(精)이 떨어지면 적응이 잘 안됩니다. 힘은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불균형으로 나타나죠. 형은 자세가 비뚤어

그림 15

비정상일때(Abnormality of 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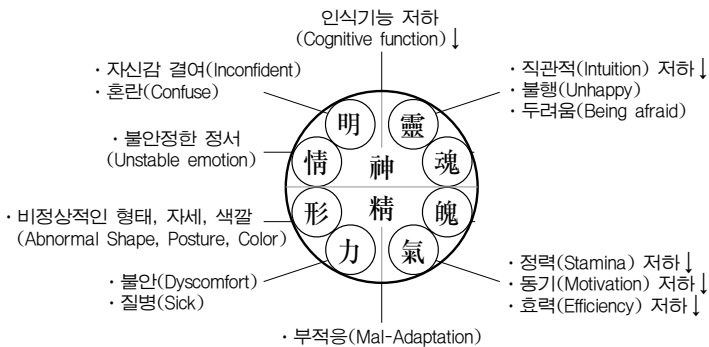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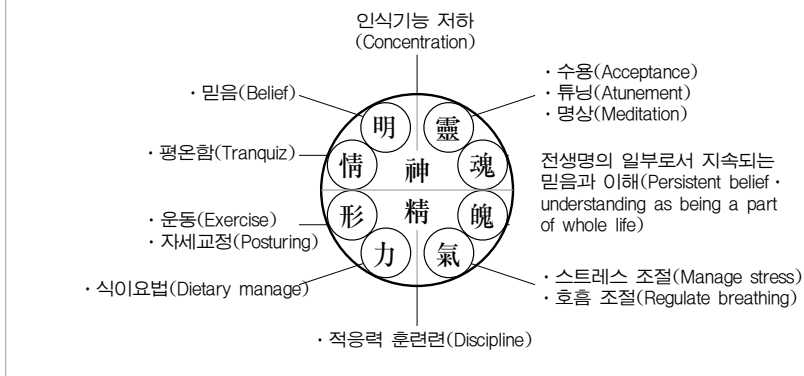


그림 16

정상화(Normalization)



졌거나 짧거나 크거나 불어났거나 등으로 나타나고, 정(情)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으로 되죠. 용기를 잃고 우울하거나 슬프고 놀란다거나하는 등으로 말입니다. 명이 문제가 있을 때는 판별력이 떨어지니 혼란스러워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神)은 머리가 맑지 않고 인식하는 의식의 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영은 직관력이 떨어지고 행복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사랑도 못 느끼죠. 사랑의 반대가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예요. 사랑과 두려움이 상반되는 기분이죠. 두려움이 없는게 사랑이죠.

그럼, 이제 비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그림16)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병을 치료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영적인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 명상 같은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지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명상이예요. 또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이라는 것이 이 방안까지 들어와 있는 과장을 TV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요. 명상으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면 저절로 들어옵니다. 명상은 각 종교마다 있는데, 그것은 절대자와 사이클을 맞추는 행위, 중간에 잡음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비우면 되는 것이지 애써서 사이클을 맞추려고 할 것은 없어요. 중간에 끼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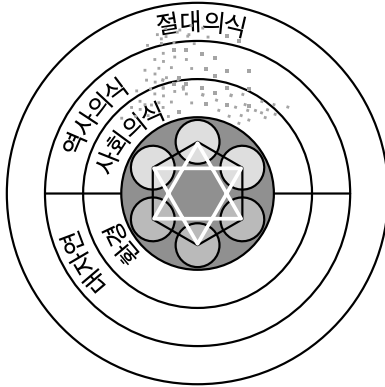
.....

는 막을 제거하면 돼요. 그 막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의 막을 제거하면 저절로 사이클이 맞춰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용이라는 것이 중요하던 말입니다. 전파가 이미 와서는 들어가게 해달라고 TV를 자꾸 두드리고 있어요. 열어놓고 수용만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여는 행위가 문을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의식집중이 신을 정상적으로 되돌립니다. 혼란스러움을 정상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여기 그것은 무한소의 점입니다. 그점이 무한으로 갈 때는 없어져요. 아주 작은걸로 가니까. 점으로 가면 시간도 없어지고 장소도 없어져요.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거나 같은 겁니다. 다 무(無)예요.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神)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무이면서 영원이지요. 무한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점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명의 극치는 믿음이에요. 정(情)은 정서의 평온함. 이게 다 통합입니다.

의사에게 가서 병의 설명을 듣는 이유는, 명이 밝혀져야 환자가 의심없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정서도 잔잔해야지, 우울이 불쑥 튀어나오거나 하는 것은 조용함이 아니지요. 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운동을 한다든거나 자세를 바르게합니다. 힘(力)은 신진대사이므로 어떻게 먹는가에 해당하는 것이죠. 정(精)은 적응력이 없으면 적응력 훈련을 해야되지요. 가르치고 연습하면서 그렇게 정을 넓혀주는 것이지요. 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형, 유형의 스트레스가 장애를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없애야 겠죠. 힘(力)이 먹는 것과 관계한다면 특히 기는 호흡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기(調氣) 즉, 기의 밸런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호흡을 합니다. 영(靈)을 위해서는 명상을 하고, 기(氣)를 위해서는 호흡을 정리해주고, 형(形)은 자세로, 정(情)을 위해서는 마음을 평정하고, 명(明)을 위해서는 완전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하는 등 우리가 건강법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나' 를 나타내는 여기서(그림 17의 중간 질은 부분) 나오는 의식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의식, 즉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사회의 의식으로 연결되어 구별이 없어지지요. 같은 필드가 얽혔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의식이 고조되면 사회 의식과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각의 날

그림 17



생명이 모여있고 주위에 더 큰 온생명이지만 이 사회자체로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역사의식이라고 해요. 과거, 미래라는 의식이 또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사회 의식이 더 고도로 확대되면 역사 의식으로도 연결됩니다. 또 역사의식 밖에는 절대의식이 있어요. 영원 무궁한 절대 의식. 다시 말하면 나라는 이 의식이 사회의식으로 접합이

되었다가 더 확대되면 역사의식으로 통합이 되고 더 확대되면 절대의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나는 절대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 말고 다른 의식도 절대자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도 나처럼 귀한 존재로 되고 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되는 거죠. 자유롭게 도통을, 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감과 사랑이 솟아나고 의욕이 생겨나면서 정력, 힘, 판단력이 생기고 감정도 평온해지며,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은 존재가 되는 거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은 극대화되고 잠재능력도 활성화되고, 의식의 수준도 크게 올라가고, 그 사람의 인격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의식이 절대의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아까 말씀하신 정상화(그림16의 과정)를 해야하는데, 모든 사람이 모든 기능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요. 자연의 섭리가 뭐 줄 아세요? 사람 하나가 생기기 위해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만 필요한데, 여성은 어느 여성이든지 난자를 약 40만개를 가

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성숙시키기 위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죠. 남자는 한번 사정하는데 1억 마리 이상의 정자가 나옵니다. 하나가 필요한데 1억 마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억 마리 중의 한 마리가 성공을 하죠. 그것도 한번 성공한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수십억 마리가 나와서 그 중의 하나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뿌리는 씨앗이 전부 열매를 맺고 수확이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인간이 도를 닦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애써도 그 1억 마리 중에 하나가 성공하듯이 아주 드물게만 도통을 하면서 위대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지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방법은 제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어요. 아까 성과 질에서 보듯이 이 도(道)와 로(路)가 다릅니다. 도는 성이고 로는 질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ay, 로는 road. way는 그냥 길이에요. 뭐 살길이 없을까, 도망갈 길이 없을까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형이고 무한대로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다다르는 로는 없든지, 하나 있든지, 두 개 있든지 그러죠. 이렇게 갈 수 있는 way는 무진장 있어요. 그러나 어디로 가느냐 하는 road는 각자 찾아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든지, 자기가 만들든지. way는 다 열려있어요. 그게 도란 말입니다. 가는 것은 각자 어떻게 가느냐 인데, 이 자연 섭리는 정자 하나가 사람이 되듯이 수십 억, 수백 억 중에 하나가 완전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자연 섭리를 거스르는 겁니까?

아니죠. 정자가 1억 마리가 나온다고 그러지만 그걸 계산해서 세어보니까 50% 이하가 되면 불임증이에요. 5천만 마리가 없으면 아기가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나왔다가 죽더라도 누군가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한 역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5천만 마리가 없으면 탄생할 한 생명이 죽는거지요. 그 섭리가 극히 드문 사람만이 도통을 해서 경지에 이르러도 탄 사람들 역시 어떤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악하다고 해도 그 악한 역할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성공이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전체를 봐야 되겠군요.

그러나 반드시 자연 섭리에서 움직이고 도통하는 존재들이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도 사람의 구분을 이렇게 하죠. 진인, 지인, 성인, 현인. 현인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맹자 등이 현인이고 성인은 공자, 예수, 석가라고 하는데 사실, 낮은 레벨의 도인들 이에요. 그것보다 더 높은 지인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 석가 보다도 더 큰 역할을 이 세상에 하지만, 나 누구요 하고 나타나지 않는 정도라고 할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성인이하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요.

이 성인들은 길(way)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도(道)의 문화이고 서양은 로(路)의 문화예요. 시가 지도를 봐도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전부 길 이름이에요. 무슨 무슨 로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길인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테헤란로는 아는데 테헤란로 1가, 2가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길이 아니라 도의 문화거든요. 어디로 가는 방향만 가르쳐 주지요. 강남에만 와도 부산에 가는 길의 표지판이 있을 정도지요.

중요한 것 몇 개만 갖다 놓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예. 우리는 중요한 방향만 만들어 놓고 중요한 것에 중요한 것을 연결해서 길이 되어 버렸어요. 참 재미있죠. 서양에는 먼저 길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짓거든요. 동양은 건물을 먼저 짓고 그 주위가 길이 되어 버리는거지요.

현실, 현상으로 드러나는 사회의 측면에서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네요. 도의 문화로는...

장단점이 있지요. 표지판에 63빌딩, 국회의사당이라고 쓰여 있어 그걸 보고 좌회전하잖아요. 로(road)의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63빌딩은 멀리서도 보여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통합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드와 웨이가 통합된다면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될 수 있을까요?

로드가 없는 데는 편리한 로드를 만들어야 되고, 로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를 가르쳐줘야죠. 이리로 가는 길은 무수히 많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실제로 깔아 놓은 것은 이렇다는 것도 알려야죠. 지도에는 로드와 함께 이런 저런 건물들을 그려놓고...

결국 로드라는 것만 알던 사람들은 자기 길을 주장하기 쉬운데 도를 알면 길은 무한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도는 무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의 길은 무진장하게 무한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이렇게 가야 하고 저렇게 가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죠. 지금의 종교는 로를 가지고 얘기하는거지요. 앞으로 도라는 것을 이해하면, 진리를 이해하면 확실히 믿어지고 믿어지면 편안하고 사랑이 우리날 것입니다.

도를 알면 싸울 필요도 없겠네요.

대도무문(大道無門)이죠. (웃음)

감사합니다. ☺

■ 전세일 박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주임교수,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동서의학 비교연구회 회장, 연세의대 재활병원 원장, 연세의대 동서의학 연구소 소장, 세계재활의학회(IRMA) 집행이사, 대한재활의학회 회장 역임, 전 한국 정신과학학회 회장, 국제재활의학회(ISPRM) 부회장,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원장.



삶의 업힘과 풀림에 관한 Bert Hellinger와의 대화

버트 헬링거 · 가브리엘러 텐 헤펠 저 / 박이호 역
/ 도서출판 진우 권 / 12,000원

지난 수년간 버트 헬링거는 가족세우기를 통해 독어권의 어느 치료사도 따를 수 없는 관심을 모았다. 이 책에서 그는 신문 편집장인 가브리엘러 텐 헤펠과의 대화에서 그의 사상과 행동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고통스러운 운명을 가져다주는 영혼에서의 사랑을 보여 줌으로서 그 운명을 벗을 수 있는 해결을 찾고 있다. 그는 또한 격분함과 도덕, 질서와 폭력, 양자제도와 근친상간에 관한 비판적인 질문에 입장을 밝히며, 더 나아가 심리치료와 국가 권력의 책임에 관한 한계를 분명히 밝혀준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양심의 한계, 자유와 책임의 한계, 선과 악, 운명의 대물림과 그 해결, 잘못함으로써 어러니 됨, 사랑의 질서, 성과 사랑, 영혼의 힘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